

초연결사회 인적자본으로서 국내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한국어 인식 조사*

조숙정 · 박성은**

(동아대학교 · 경성대학교)

1. 서론
2. 인적자본으로서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과 한국어
 - 2.1.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정의
 - 2.2. 인적자본으로서의 외국인 유학생
3. 연구대상 및 방법
 - 3.1. 연구대상
 - 3.2. 연구방법
 - 3.3.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4. 연구결과
 -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4.2. 재학생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 태도: 교차분석
 - 4.3. 재학생/졸업생의 한국어 구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4.4. 개방형 질문에 관한 추가 분석
5. 결론 및 제언

*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함 (NRF-2022S1A5C2A03093301).

** 제1저자: 조숙정, 교신저자: 박성은

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어기반의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습득 필요성의 인지 정도를 분석하고, 언어적 요소가 취업과 정주 및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분석 원자료는 법무부 용역과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우수인재 실태조사 및 주요국 사례연구』의 852개 외국인 유학생 설문조사를 활용, 본 연구에 부합하도록 재학생의 경우 체류자격이 D-2(유학) 비자인 542명, 졸업생은 체류자격이 명확한 81명만 분석 대상으로 삼아 총 623명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공계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과 한국생활 전반에 영어 사용으로 한국어의 필요성을 낮게 인지했으며, 한국어 학습 의지보다 영어 중심의 환경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인적자본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학 전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보완, 정부-기업-대학의 이공계 유학생 육성과 활용을 위한 협력,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주제어】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정책, 인적자본, 외국인 우수인재, 한국어

1. 서론

한국은 물적자본의 부족과 제한된 국내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문화강국으로 발전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성장과 발전은 열악한 물적자본 환경을 인적자본으로 극복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자본 향상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해외 인재 유치이다.

인구감소는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은 2030년까지 60만 명, 프랑스는 2027년까지 50만 명, 일본은 2033년까지 38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¹⁾ 이처럼 국제사회는 인적자본 확보를 위해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초연결사회로 진화한 현대사회에서는 개별 국가 시장을 초월하여 경제적 통합과 글로벌화(Globalization) 확산에 따라 노동력을 공유하고 있어서, 노동인구 부족에 따른 위기 상황을 해외 인적자원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글로벌 노동시장을 통해 개인은 세계 각국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졌다. 따라서 국내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정책이 요구되지만, 해외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단순 노동 인력이 아니라, 미래 한국 사회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수인재 확보가 요구된다(윤종혁·이강주·서예원·김훈호·이쌍철·이상무·박일·김여리·한연희·우천식·주휘정·이상협 2016: 3-4). 고급 기술 인력은 단기간에 양성해 낼 수 없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을 육성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한국은 공학과 기술 전공 해외 인재 선호도가 70.8%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윤종혁 외 2016: 126), <표 1>과 같이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유치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인문사회계열이 62.48%를 차지하는 반면, 공학계열은 13.1%에 불과하다. 유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²⁾ 정작 한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이공계열 유학생 유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실태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중 63%는 졸업 후에도 한국에 남고 싶다고 응답했고, 이 중 19.6%는 전문과학 업종에 취업을 희망했다.³⁾ 그러나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중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 교육부, 유학생 교육경쟁력제고방안.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23.08.16.

2)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91,332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8,962명이다(교육부 2015-2024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3) EduKorea News(2025.04.29.). 외국인 유학생 절반 이상 한국 떠난다...비자 장벽과

〈표 1〉 2024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전공분야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과학	예체능	의학	계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과학	예체능	의학	계
24,498	3,465	1,361	4,341	195	33,860	8,090	3,393	1,673	4,805	333	18,294

* KEDI의 2024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다. 특히 고급인재일수록 이탈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를 보면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중 본국으로 돌아간 비율은 2016년 40.9%에서 2021년 62.0%로 급증했다. 한국에 남는 비중은 39.1%에서 29.8%로 줄었다. 고급 두뇌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내에 취업한 고학력 외국인 유학생은 대체로 국내 대학원의 진로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숙원 2021: 2).

교육은 ‘양’만이 아니라 ‘질’이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의 대학 교육과 기업이 외국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다(이종화 2016: 274). 한국이 인재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주 및 정책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교육 및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트랙으로 입학하여 영어기반의 유학 생활을 하는(BK21 4단계 사업 운영지침, 202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인적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어 의사소통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에 취업하는 데 있어 한국어 능력 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소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민숙원 · 송창용 · 윤혜준 · 김혜정 2020: 189)는 문제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후 대학의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정책은 그 비중이 증가하는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 <https://edukorea.news/archives/8550> 검색일:2025.06.02.

추세(김윤주 2024: 26)고, 기업체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꽃별 2025: 35-37).

이러한 기업체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영어기반의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습득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유학생의 한국어 습득 필요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찰하고, 이공계 유학생을 인적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어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인적자본으로서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과 한국어

2.1.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정의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지식확산과 고도의 훈련과 교육, 건강개선 그리고 이주의 증가와 출산을 변화 등 인구학적인 전환을 통해 인적자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Goldin, Claudia 2014: 1). 인적자본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특히 세계 경제에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OECD(2001)는 인적자본을 개인적·사회적·경제적 복지 형성에 기여하는, 각 개인에게 체화된 지식, 기능, 경쟁력 및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능력은 교육투자의 결과로 볼 수 있다(김선재·이영화·임광혁 2010: 316).

또한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사람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인적자본을 경쟁 우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⁴⁾ 전 지구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고급 두뇌,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만큼 우리나라의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수립한 것도 단순한 학생 유치가 아니라 국내 인적자본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으로 볼 수 있다.

4) 맥킨지글로벌연구소. "사람을 통한 성과: 인적 자본을 경쟁 우위로 전환." <https://www.investopedia.com/terms/h/humancapital.asp#citation-9>

2.2. 인적자본으로서의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각 대학의 학생 유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들을 교육하여 국내 취업과 정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부족은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에서 노동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 등 주변 국가들도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⁵⁾

우리 정부도 이민자 유입 초기부터 우수인재 중심의 문호개방을 천명해 왔다(법무부, 2008).⁶⁾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분야 고급 두뇌 확보방안(권기현 외 2005; 이규용 외 2005; 류지성 2008), 해외인재 유치 및 취업(배민근 2006; 김갑수·최규용·강경식 2013; 임정재 2024; 김미연 2025), 해외 인적자원 정책(김필두 2012; 이희수·조순옥 2006; 한용진·김남희 2005) 등이 꾸준히 연구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우수 인재 확보정책이 외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그 실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병관 2013:15)을 받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우수 인재를 국내 인적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언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교육 과정, 둘째, 인적자본 관점에서 본 외국인 유학생, 셋째, 외국인 인력의 한국어 필요성에 관한 연구다.

2.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교육 과정

한국은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이들을 한국 기업에 연계하는데 중요한 요

5)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2.2.자 이민청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49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밝힘.

6) 법무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소이다.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향후 한국에 정주·취업하여 인적자본으로서 가지는 유용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이 산업 인력 양성 목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내 한국어교육 정책은 〈Study Korea Project (2004)〉, 〈Study Korea Project 발전 방안(2008)〉, 〈Study Korea 2020 Project(2012)〉, 〈Study Korea 300K Project(2023)〉의 4단계 변화과정을 거쳤다(김윤주 2024: 20). 그런데 이들은 모두 유학생 유치정책으로 해외 한국어 보급에 치중되어 있다. 2023년 정책에 국내 한국어교육 확산을 위해 대학 내 한국어교육 시설과 지자체 평생학습시설 등을 한국어센터로 지정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윤주 2024: 25).

또한 2014년 발표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에 국내 대학 입학 자격요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였다(김윤주 2024: 10). 그러나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의 영어트랙은 한국어 요건 대신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를 입학 자격 요건으로 삼았다(교육부, 2025.3.14.).⁷⁾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전 한국어 요건은 현저히 완화된 추세이다. 박시균 외(2023)는 대학 내에서 한국어 교과목 개발은 현재 논의 중이나 지방 소재 대학은 교양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중급 또는 중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공 강의나 교양 강의를 듣기에 역부족(권문화·손경애·갈라노바 딜노자 2024: 11)하고, 학부 과정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80% 미만인 학생이 85.34%에 이르러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이 강의 이해 정도가 부족한(장석진 2022: 91)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주 외(2023)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체류 장벽을 고찰한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을 위한 언어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 대학 졸업 후에는 한국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며,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보호와 취업을 위해 한국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이윤주 2023: 125). 권문화 외(2024)는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해 각각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이 ‘매우그렇다’의

7) 교육부(2025.3.14.).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개정)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한국어 말하기 수업과 의사소통기술 교과목에 대한 수강 욕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권문화 외 2024: 14-17).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아직은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영어기반이 아닌 계열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위와 같은 실정으로, 영어기반의 이공계 유학생의 경우는 대학과 유학생 개인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김꽃별(2024)의 연구에서 IT서비스 업종에 근무 중인 공학계열 졸업자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고, R&D 업종에 종사하는 자도 매니저 이상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 능력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대기업 건설 업종에 근무하는 자도 취업 후, 의사소통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김꽃별 2024: 35-37).

즉 영어기반으로 대학원을 다니는 이공계 유학생에게도 취업을 유지하고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소통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현재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학 또한 유학생 유치만이 목적이 아니라 국내 인적자본으로 활용가능하도록 교육정책을 정비하여 대학과 기업체가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둔 한국어정책이 인적자본 목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의 한국어 완화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당사자의 한국어 인식 정도에 대한 연구 또한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2.2.2. 인적자본 관점에서 본 외국인 유학생

인적자본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특히 세계 경제에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가 경쟁하는 추세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인적자본이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수용국의 전반적인 사회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Barro and Lee 2015; 이종화 216: 269에서 재인용).

한국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따른 지역인재 양성

과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각국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수준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된 만큼,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해서 양질의 인적자본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김선재·이영화·임광혁 2010: 323)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윤주(2022: 144)는 법무부가 지역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실시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사증 발표 및 체류 관리지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자로써 5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유학생 비자는 16.8%고, 나머지는 전문인력(11.8%), 방문취업(1.7%), 비전문취업(0.4%) 비자로 전환하였다(이창원·김도혜·최서리·신소희 2020: 60). 이는 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전환된 비율이 11.8%로 그렇게 높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23년 외국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제안하였고⁸⁾ 법무부는 2023년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하고⁹⁾ 숙련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¹⁰⁾와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표와 체류 관리지침¹¹⁾을 제시하여 각각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에 정주하도록 유도하였다. 2024년 법무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¹²⁾ 여기에는 유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며, 불법 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 탈락률 등은 전년과 유사한 수

8) 교육부 브리핑 시 보도자료(2023.08.16.).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9) 법무부 보도자료(2023.01.01.).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10) 법무부 보도자료(2023.08.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 ① 숙련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11) 법무부 보도자료(2023.06.23.).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12) 법무부 보도자료(2024.02.07.).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준이라고 밝힐 뿐 유학생의 취업 연계와 관련한 수치는 없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연구보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연구로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들의 취업 이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면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은 이공계열에 좀 더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2.3. 외국인 인력의 한국어 능력 필요성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취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이윤주 · 김명광 2023: 115). 이들의 한국 취업 의지는 의사소통 장벽과 한국 기업의 채용 만족도 부족 등(민귀식 2014: 144-146)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어는 취업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언어능력 향상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이윤주 외 2023: 125),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데 우호적이지 않다는 인식(민숙원 2020: 114)이 높게 자리하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기업 취업 의향과 희망 조건을 조사하여 향후 지원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¹³⁾에서 한국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애로사항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은 애로사항임(35.7%), 보통(30.47%), 애로사항이 아님(33.9%)으로 조사되었지만, 국내 기업 취업 후의 우려 사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한국어 능력 부족’을 우려함(46.9%), 보통(27.2%), 우려하지 않음(26.0%)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김꽃별 2025: 22).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관련 의견조사’¹⁴⁾에서도 ‘국내에서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서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24.8%), 취업절차에 대한 준비(이력서 작성, 면접준비 등)가(21.0%), 한국어를 잘 못 해서(18.7%)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자리

13)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국내 기업 취업 의사 실태조사(한양대 노태우 교수팀)로 재학 중인 유학생의 우리나라 기업 취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4.5.1.~7.31. 까지임.

14) 중소기업중앙회(2025.03.24.), 외국인유학생 졸업 후 진로 관련 의견조사.

정보와 이력서 작성, 면접과 같은 취업 준비는 한국어 능력과 따로 분류할 수 없는 요소로 국내에서 한국어 능력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공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취업 시 언어 요구 수준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숙정·오정은 2025: 280).

국내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의사를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¹⁵⁾에서 대다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낮아 어려움(52.2%)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 능력 부족은 의사소통과 업무지시 등에 난항이 있다고 밝혀(김꽃별 2025: 24), 실제 근무환경에서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고급인력 채용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어 구사 수준(74.7%)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대하는 점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 대비 한국어 능력이 높다(57.4%)는 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책으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요청하였고,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서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사전 교육과 시험 시행(46.8%)’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뽑았다(김꽃별 2025: 26~27).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과 졸업 후 귀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대학 생활의 적응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위 취득 후 진로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이윤주 외 2023: 108). 특히 각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이들이 인적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학생 유치와 적응에서 벗어나, 이공계의 첨단 산업 분야 유학생의 한국어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이공계도 한국어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15) 무역업계 외국인 인력활용 실태조사(무역협회)로 외국인 인력 활용 현황과 대졸 이상의 고급 숙련인력 고용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 조사 기간은 2024.6.24.~7.8.까지임.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3년 법무부 용역과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우수인재 실태조사 및 주요국 사례연구』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설문조사 결과 원자료를 사용하였다.¹⁶⁾ 원자료의 전체 유효응답자는 852명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재학생은 체류자격이 D-2(유학) 비자인 응답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 순수 학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패턴을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졸업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선정하였다. 1) 체류자격에 ‘기타’로 응답한 41명은 명확한 신분 확인이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E-1(교수), E-3(연구), E-7(특정활동) 비자는 유학 후 전문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집단으로 판단하여 ‘전문직군’으로 통합, 분석에 포함하였다. 3)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권) 비자는 유학생과는 다른 한국어 학습 동기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여 제외하였다. 4) 결혼이민(2명)과 귀화한국인(1명)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해 영어를 주요 수업언어로 하는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동질적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총 623명으로, 재학생 542명 졸업생 81명으로 구성되었다.

16) 주요 조사대상은 5개 국립이공계 특성화교육기관(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과 QS100위 이내에 소속된 5개 대학(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총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3.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이공계 유학생의 한국어 습득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취업·정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분한 것은 두 집단이 한국어 학습에 대해 다른 경험과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학생은 학업 중 미래 계획에 따라 한국어 학습 동기가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졸업생은 이미 한국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경험한 후 한국어의 실제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에 대한 경험적 차이에 따른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어 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한국어 구사 여부(1=한국어, 0=영어/기타)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통제변수 포함)로는 성별, 연령대, 한국친구 유무, 수업언어, 각종 만족도, 졸업 후 계획 등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다만, 한국어 사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영역의 만족도는 제외하고 사회적·제도적 영역 변수들만을 분석에 포함하여, 재학생과 졸업생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는데, 특히 한국친구 유무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이는 성인 초기에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주요한 발달과업(Erikson, 1963)이고, 외국인 유학생은 이러한 과업 달성에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박은경(2011)의 연구에서도 현지인 친구 수가 많을수록 대학 및 지역사회 적응이 향상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성인 초기 발달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 유학생들은 타국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발달적 과업에 직면하며, 이 과정에서 현지인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현실(2018)은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된 유학생들이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이 대학에 잘 적응하려면, 현지인과의 관계를 잘 형성되어야 한다(박순영, 2016). 따라서 한국인 친구의 존재를 한국어 사용 필요성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선정하였다.

수업언어는 학습 환경이 언어 선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신희여 외(2023)는 외국인 입학생이 읽기·쓰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입학하고 있으며, 입학한 유학생이 학문 목적의 글쓰기 과정을 이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경현·신영지(2015)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한국어능력 부족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인혜(2023)는 전공 학습 과정에서 영어 강의만을 수강할 경우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업언어가 한국어 사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각종 만족도 변수(생활전반,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육환경, 학교지원 서비스)는 유학생의 적응 수준과 한국 사회에 대한 태도가 한국어 학습 동기와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이인혜·공하림(2019)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학업 스트레스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주동범·향화(2013)와 김현진·문영하(2014)는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학업 지속성과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문화적응 과정에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혜(2023)는 유학 초기 적응과 학습 환경, 수업 방식의 변화 등이 한국어 학습의 주요 탈동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어 사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영역 만족도는 제외하고 사회적·제도적 영역 변수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졸업 후 계획은 미래 지향적 동기가 현재의 언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학 온 외국인 학습자는 단기체류자가 아니라 졸업까지 최소 4년 이상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학위과정을 마친 후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한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김경현·신영지, 2014).

따라서 이들의 졸업 후 계획은 현재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사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인혜(2023)는 한국어 학습 동기가 1.5년 시점에서 가장 낮았으나 2년과 3년 시점에서 가장 높아졌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국어 필요성 인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3.3.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주요 변수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이다. 국가범주는 출신국가를 ①동남아시아, ②남아시아, ③중앙아시아, ④서아시아, ⑤중국, ⑥아프리카, ⑦유럽, ⑧아메리카의 8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거주기간은 ① 1년 이상~3년 미만, ② 3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친구 유무는 이분형으로 한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구성, 학습 환경 변수인 수업언어는 주로 듣는 수업언어를 ① 한국어, ② 영어, ③ 기타로 분류하였다. 만족도 변수(생활전반,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육환경, 학교지원서비스)는 리커트 5점 척도(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졸업 후 계획은 졸업 후 진로를 한국 정착(한국에서 취업, 한국에서 상급학교 진학)과 해외 진출(본국 귀국, 제3국 취업, 제3국 상급학교 진학, 기타)로 분류하여, 한국 정착 계획이 있는 경우 1,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 한국어 구사는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1, 영어 및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이항변수로 처리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총 참여자는 623명으로, 재학생 542명(87.0%)과 졸업생 81명(13.0%)으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재학생		졸업생	
		n	%	n	%
성별	남성	299	55.2	55	67.9
	여성	243	44.8	26	32.1
연령대 구간	20대 초반(만 21세 ~ 24세)	36	6.6	2	2.5
	20대 중반(만 25세 ~ 26세)	159	29.3	1	1.2
	20대 후반(만 27세 ~ 29세)	163	30.1	15	18.5
	30대 초반(만 30세 ~ 33세)	117	21.6	37	45.7
	30대 중반 이상(만 34세 이상)	67	12.4	26	32.1
국가 범주 ¹⁷⁾	동남아시아	159	29.3	18	22.2
	남아시아	161	29.7	2	2.5
	중앙아시아	17	3.1	12	14.8
	서아시아	20	3.7	20	24.6
	중국	117	21.6	17	20.9
	아프리카	26	4.8	5	6.2
	유럽	25	4.6	5	6.2
	아메리카	17	3.1	2	2.5
거주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276	50.9	8	9.9
	3년 이상 ~ 5년 미만	131	24.2	9	11.1
	5년 이상	135	24.9	64	78.9

17)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남아시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서아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등; 중국: 홍콩 1명, 타이

먼저, 성별은 재학생의 경우 남성이 299명(55.2%), 여성이 243명(44.8%)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으나, 졸업생은 남성 55명(67.9%), 여성 26명(32.1%)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재학생 연령대는 20대 중반(25-26세) 159명(29.3%), 20대 후반(27-29세) 163명(30.1%)이 주를 이루어 전체 59.4%를 차지했다. 반면 졸업생은 30대 초반(30-33세)이 37명(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중반 이상(34세 이상)도 26명(32.1%)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재학생보다 연령대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출신국가 분포는, 재학생은 남아시아 161명(29.7%), 동남아시아 159명(29.3%), 중국 117명(21.6%) 순이며, 졸업생은 서아시아 20명(24.6%), 동남아시아 18명(22.2%), 중국 17명(20.9%) 순으로 재학생과는 다소 다른 분포를 보였다.

거주기간의 경우 재학생과 졸업생 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재학생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인 276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 131명(24.2%), 5년 이상 135명(2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졸업생의 경우 5년 이상 거주자가 64명(78.9%)으로 나타나, 졸업생이 학업을 완료한 후에도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자는 8명(9.9%), 3년 이상 5년 미만 거주자는 9명(11.1%)에 불과했다.

4.2. 재학생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 태도: 교차분석¹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자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표 3>과 같다. 교차분석은 범주형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집단별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완 2명 포함; 아프리카: 이집트, 에티오피아,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유럽: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이탈리아 등;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조숙정 외 2025: 270)

18) 본 분석에서는 졸업생 설문에 유학 전후 한국어 공부 여부 및 학습 방법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

유학 전후 한국어 학습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chi^2=24.261$, $p<.001$ 로 나타나, 유학 전 한국어 학습 경험과 유학 후 학습 지속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전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81.0%(128명)가 유학 후에도 한국어 학습을 지속하였지만, 19.0%(30명)는 유학 전 학습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후에는 한국어 학습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전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58.9%(226명)가 유학 후 새롭게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였으나, 41.1%(158명)는 여전히 한국어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수업과 학교생활 전반에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유학 전/후 한국어 공부 여부

유학 전/후 한국어공부 여부		유학 후 한국어 공부 여부		전체
		있음	없음	
유학 전 한국어 공부 경험	있음	128(81.0%)	30(19.0%)	158(100%)
	없음	226(58.9%)	158(41.1%)	384(100%)
전체		354(65.3%)	188(34.7%)	542(100%)

$\chi^2=24.261$, $p<.001$

다음으로는 유학 전 한국어 학습 경험이 유학 후 한국어 학습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아래 〈표 4〉와 같이, $\chi^2=12.631$, $p<.05$ 로 유학 전 한국어 학습 경험과 유학 후 학습 지속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학 전/후 한국어 학습 방법에 따른 유학 후 학습참여

유학 전 한국어 공부 방법	유학 후 한국어 공부 여부		전체
	있음	없음	
독학	63(85.1%)	11(14.9%)	74(100%)
민간사설학원	17(77.3%)	5(22.7%)	22(100%)
한국기관제공 수업	22(88.0%)	3(12.0%)	25(100%)
학교 강의	5(45.5%)	6(54.5%)	11(100%)
개인교습	11(91.7%)	1(8.3%)	12(100%)
인터넷 수업	8(72.7%)	3(27.3%)	11(100%)
기타	2(66.7%)	1(33.3%)	3(100%)
전체	128(81.0%)	30(19.0%)	158(100%)

$\chi^2=12.631, p<.05$

이때, 유학 전 한국어 학습을 ‘독학’한 경우가 74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기관제공수업’ 25명(15.8%), ‘민간사설학원’ 22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한국 유학 이후에도 높은 비율로 한국어 학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사례 수는 적지만 유학 전 개인교습을 받은 학생의 경우 91.7%가 유학 후에도 한국어 학습에 참여하였고, 한국기관제공 수업(88.0%), 독학(85.1%)도 높은 학업 지속률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 강의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은 유학 후 45.5%만이 한국어 학습에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속률을 나타냈다.

앞서 분석한 유학 전후 한국어 학습 패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학생들의 언어 사용 환경을 분석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197.296, p<.001$ 로 나타나 수업언어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542명 중 456명(84.1%)이 영어로 수업을 듣고 있으며, 464명(85.6%)이 학교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언어가 영어인 학생 456명 중 427명(93.6%)이 학교에서도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어 중심의 학습 및 소통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재학생의 학교수업 언어 및 학교 내 사용언어 교차분석 결과

		수업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기타	
학교 사용언어	한국어	42(65.6%)	18(28.1%)	4(6.3%)	64(100%)
	영어	34(7.3%)	427(92.0%)	3(0.6%)	464(100%)
	출신국가언어	1(20.0%)	4(80.0%)	0(0.0%)	5(100%)
	기타	0(0.0%)	7(77.8%)	2(22.2%)	9(100%)
전체		77(14.2%)	456(84.1%)	9(1.7%)	542(100%)

$$\chi^2=197.296, p<.001$$

반면 수업언어가 한국어인 학생들의 경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다.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77명 중 42명(54.5%)만이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34명(44.2%)은 수업은 한국어로, 학교생활은 영어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조차도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는 영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8.8%(427명)가 수업과 학교생활 모두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사용 필요성을 체감할 기회가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차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 전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지만 19.0%의 학생이 유학 후에 한국어 학습을 중단하였다. 이는 실제로 한국 생활에서 한국어의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유학 전 한국어 학습을 경험하지 않은 무경험자의 경우 41.1%가 여전히 한국어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수 유학생이 한국 거주 후에도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전체 응답자의 78.8%가 수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의 필요성을 체감할 기회가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재학생/졸업생의 한국어 구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영어트랙 전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78.8%가 수업과 학교생활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한국어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생활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이 인식하는 한국어 필요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중심 환경의 이공계 석·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표 6>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¹⁹⁾

재학생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한국친구 유무, 수업언어 등의 통제변수를 고려한 결과, ‘졸업 후 한국 정착 계획’이 한국어 구사(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B=.905, p=.020$). 이는 한국 정착 계획이 있는 유학생이 외국으로 갈 계획인 유학생에 비해 한국어를 구사할 확률이 2.47배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생활전반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교육환경만족도, 학교지원서비스만족도 등 모든 만족도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재학생의 경우 현재의 만족도보다는 미래 계획이 한국어 구사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졸업생의 경우, 재학생과 대조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한국 정착 계획’이 유의하지 않았고($B=-0.516, p=.609$), 만족도 변수 중 교육환경 만족도만 정(+)의 영향을 미쳤다($B=1.071, p=.097$). 이는 졸업생에게는 미래 계획보다 과거에 받은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어 구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졸업 후 한국 진로계획’과 ‘만족도 변수’간 결과가 재학생과 졸업생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재학생 경우, 계획은 유의하고 만족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졸업생 경우, 계획은 유의하지 않고 교육환경 만족도만 유의했다. 이는 재학 중에는 미래

19) 종속변수의 비율이 80% 미만으로 나타나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향적 동기가, 졸업 후에는 과거 경험에 대한 평가가 한국어 구사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재학생과 졸업생의 한국어 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재학생의 경우 미래 계획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졸업생은 실제 교육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편, 재학생에서 발견된 ‘졸업 후 한국 진로계획’의 정(+)의 효과는 통계적 관계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한국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실제 한국어 구사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만으로는 계획과 실행 간의 일치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추가하였다.

〈표 6〉 재학생 및 졸업생 한국어 구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P	Exp(B)
재 학 생	성별	1.354	.391	12.009	<.001***	3.871
	연령대	-.406	.384	1.118	.290	.666
	한국친구유무	-1.569	.474	10.944	<.001***	.208
	수업언어 한국어	.107	.853	.016	.900	1.113
	수업언어 영어	-3.270	.854	14.658	<.001***	.038
	생활전반 만족도	-.190	.353	.292	.589	.827
	학교생활만족도	.131	.292	.201	.654	1.140
	친구관계만족도	.010	.279	.001	.971	1.010
	교육환경만족도	.033	.279	.014	.906	1.033
	학교지원서비스만족도	-.289	.235	1.515	.218	.749
	졸업후계획_한국(더미변수)	.905	.388	5.421	.020*	2.471
	상수항	1.571	1.898	.686	.408	4.813
졸 업 생	성별	1.849	1.045	3.131	.077 [†]	6.352
	연령대	-.134	.453	.087	.768	.875
	한국친구유무	-.658	1.235	.284	.594	.518
	수업언어 한국어	2.743	1.665	2.714	.099 [†]	15.528
	수업언어 영어	-2.808	1.553	3.269	.071 [†]	.060

	B	S.E.	Wald	P	Exp(B)
생활전반 만족도	-1.225	.858	2.038	.153	.294
학교생활만족도	-.048	.929	.003	.959	.953
친구관계만족도	.467	.522	.801	.371	1.595
교육환경만족도	1.071	.644	2.760	.097 [†]	2.917
학교지원서비스만족도	.260	.600	.187	.665	1.297
졸업후계획_한국(더미변수)	-.516	1.009	.262	.609	.597
상수항	-2.966	4.894	.367	.545	.052

종속변수: 한국어구사

***p<.001, p<.05, †p<.1

재학생: Nagelkerke R² = 0.490

졸업생: Nagelkerke R² = 0.732

4.3.1. 재학생/졸업생 졸업 후 계획에 따른 한국어 구사

앞서 국내 이공계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한국 진로계획'이 재학생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표 7>과 같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 후 한국 정착 계획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생의 경우 47.6%(258명), 졸업생의 경우 56.8%(46명)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한국 정착 계획 비율이 약 9%p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함께 살펴볼 때 의미 있는 발견이다.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한국 정착 계획을 더 많이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재학생 집단에서만 정착 계획이 한국어 구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졸업생 집단에서는 정착 계획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한국어 구사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학생의 경우 미래 계획이 현재의 한국어 구사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졸업생은 이미 한국 생활 경험을 통해 한국어 구사 여부가 결정되어 미래 계획과의 연관성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

재, 앞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졸업생에게는 교육환경 만족도와 같은 과거 경험 요인이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7〉 졸업 후 한국 정착 계획에 따른 한국어 구사(빈도분석)

단위 : n(%)

	해외 진로*	국내 진로**	전체
재학생	284(52.4)	258(47.6)	542(100.0)
졸업생	35(43.2)	46(56.8)	81(100.0)

* 본국으로 귀국, 제3국에서 취업, 제3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기타

** 한국에서 취업, 한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4.4. 개방형 설문에 관한 추가 분석

국내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과 특히 졸업생의 한국 기업 취업 또는 한국 활동에서 한국어와의 관계를 좀 더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한국어 인식 차이와 실제 취업 과정에서 한국어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재학생의 경우 542명 중 426명이 응답하여 78.6%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의미한 응답을 제외하고 268개 응답을 최종 분석하였다. 졸업생의 경우 총 81개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N/A', 'No', 'none', '없음' 등의 무의미한 응답 22개를 제외하고 59개 응답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어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통해 테마별 대표적인 응답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4.4.1. 한국어에 대한 관심 양상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에서 한국어는 주요 관심사로 나타났으나,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재학생의 경우 언어 장벽이 전체 의견의 17.5%(47회)를 차지한 반면, 졸업생은 37.3%(22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과 연계된 언어 문제를 포함하면 두 집단 모두에서 한국어는 핵

심적인 이슈로 확인되었다.

첫째, 재학생들은 현재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언어 장벽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13회 언급). 특히 이공계 분야의 전문적 내용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학술적 한국어 이해 능력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전문 분야에서의 한국어교육 필요성을 시사한다.

“제 학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입니다. 기초적인 한국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슬픈 점은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The most difficult thing I face in my department is the language. I can speak and understand basic Korean, but the classes are taken in Korean, and it is a very tough situation. The sad part is that there is no option for foreign students to take English courses.) - 방글라데시 95년생 여성”

둘째, 재학생은 한국어 능력이 미래 취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총 38회 언급). 이들의 우려는 주로 예상되는 어려움과 사전 준비의 필요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재학생 응답에서는 한국어 요구 수준의 완화나 글로벌 인재 비자 같은 제도적 해결책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한국어 제한 수준이 낮더라도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It would be great if some companies could accept foreigner students for working with lower level of Korean language restrictions.) - 스리랑카 91년생 남성”

“한국어 능력과 관계없이 외국인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영국과 같은 글로벌 인재 비자를 제공해 주세요.(Equal opportunities to Foreign students regardless of Korean language and provide Global talent Visa (Like UK).) - 파키스탄 98년생 남성”

졸업생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졸업생은 한국어 장벽을 실제로 경험한 제약 요인으로 인식했다(총 30회 언급). 이들의 응답은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특징을 보였다. 졸업생은 한국어 능력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요구했다.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토픽 3급)을 의무화하여 취업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Make compulsory for phd students to learn korean language in University (topik 3) so that we don't find hard time to get a job.) - 인디아 92년생 남성”

“한국에서 언어 장벽이 큰 문제입니다.(In Korea language barrier is a big problem.) - 인디아 95년생 남성”

또한, 졸업생들은 재학생보다 행정 서비스와 취업 정보 접근성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6회 vs 2회). 이는 실제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 어려움을 반영한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 시스템에 영어를 글로벌 언어 옵션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취업/연구 기관 웹사이트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영어버전이 있어도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In the current situation, Korea needs to add English as global language option in their system. Most of the job/research institutes websites are in Korean, and if they have English version, they don't provide complete information.) - 파키스탄 86년생 남성”

“정부와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높여 더 많은 영어/한국어, 중국어/한국어 다중 언어 취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에게 경제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 주세요.(推进政府和企业的国际化水平, 提供更多英语/韩语、中文/韩语的多工作语言就业岗位, 或者为不会讲韩语的留学生提供经济的韩国语培训.) -중국 87년생 남성”

4.4.2. 취업에 대한 한국어 영향 인식

한국 기업 취업에 대한 한국어 영향의 차별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재학생의 경우 예방적 관점, 졸업생은 적응적 관점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학생은 한국어 문제를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육 과정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영어 강의 확대, 한국어 교육 강화, 글로벌 인재 비자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학생들이 학업에서 취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고 한국어 자격증이 있어도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The Govt. should facilitate the students in the transition from studies to job. There are almost no companies that actively hire foreigners. If we attend the job fair, and even have Korean language certification, they say that they are not hiring foreigners.) - 파키스탄 94년생 여성”

졸업생은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을 추구했다. 다중 언어 환경 구축, 정보 접근성 개선, 경제적 한국어 교육 지원 등 즉시 적용 가능한 해결책에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졸업 전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취업 지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Government provides job information before graduation so that students can prepare for job application.) - 베트남 95년생 남성”

“졸업 후 좋은 급여의 직장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It is a lot difficult to find a well paying job after graduation.) - 파키스탄 91년생 남성”

4.4.3. 한국어 수용 태도

마지막으로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이 한국어 수용 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비영어권 국가로 한국에 장기거주할 경우 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학습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를 기반으로 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 영어를 글로벌 언어 옵션으로 추가해야 한다.(In the current situation, Korea needs to add English as global language option in their system.) - 파키스탄 86년생 남성”

“다른 언어 선호도도 영어처럼 주어져야 한다.(Other language Language preference also should have been given like in English (Job).) - 졸업생, 인도 92년생 남성”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를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중언어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기반의 학습환경 제공은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보다 오히려 한국이 다양한 언어를 수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어를 배울 계획도 없기 때문에 생활, 공부, 일에 불편을 느낄 것이다. 생활의 불편함은 특히 의료, 쇼핑, 교통, 자녀교육 등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我不懂韩语, 也不打算学韩语, 所以会对生活、学习、工作感到不便.生活的不便尤其体现在医疗、购物、交通、子女教育等方面.如何解决这些不便之处.) - 졸업생 81년생 중국 여성”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러 왔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언어 훈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싶어하지 않습니다.(We come to study Science don't wish to spend too much time in technical and scientific language training.) - 인도 99년생 여성”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겠다는 의지보다 오히려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언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이들은 대학원에서 수업언어가 영어지, 한국사회가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는 기본적 인식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한국 사회의 언어적 현실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하며, 장기 거주자로서의 적응 의지 결여를 보여준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에서 당연히 인적자본으로서 가

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습득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의 어려움을 넘어 근본적인 문화적 적응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학생들도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더 많은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영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local students also should improve English to foster more discussion. More and more foreigners are studying Korean language for daily life, but scientific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English.) - 졸업생, 중국 95년생 여성”

나아가 기본적인 국가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몰상식함을 보여준다. 유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한국의 언어체계가 유학생 중심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한국어는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정체성이다. 한국에서 영어 및 그 외 언어는 옵션이다. 그런데 유학생을 위해 한국인의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에 대한 존중감이 배제되어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현지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한국 사회의 언어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제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글쓰기 문화가 매우 한국적이기 때문이다.(Korea is not my first option to stay forever. The reason is that writing culture in Korea is very Korean.) - 졸업생, 파키스탄 94년생 남성”

“한국 정부는 한국어 실력과 관계없이 최고의 국제 인재들에게 동등하거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일하고 한국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미국처럼 국제적인 우수 인재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Korean Government should give equal or sometimes more opportunities to best international Talent regardless of Korean Language so that they can work and support

Korean at international Level. (Just follow the USA where international high Talent people can get equal opportunities.) - 졸업생 파키스탄 91년생 남성”

“한국 기업과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공계 학생들은 한국어를 충분히 배울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없으면 한국 기업들은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의 업무 문화가 국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There is a gap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at Korean Universiti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students don't have much time to learn enough Korean language. And without Korean language ability, Korean companies don't want to hire foreign talent because the work culture in Korean companies is not international.) - 졸업생 파키스탄 87년생 남성”

“한국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렵다.(No one in Korea is ready to accept anyone else. Conducting in a conversation with a Korean person is extremely hard.) - 터키 94년생 남성”

이와같이 외국인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학습하기보다 한국이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영어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응답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 패턴이 관찰된다.

첫째, 일방적 적응 요구이다. 상호 문화적 적응보다는 한국 사회가 일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 이는 거주국 적응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부재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서 환경 개선만을 요구하는 태도는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인재 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자신들을 우수한 인재로 규정하면서도 현지 언어와 문화 적응 노력은 회피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글로벌 역량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반영하며, 다문화적 소통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시사한다.

셋째, 문화적 상대주의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

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뿐아니라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 간 이해의 일방향성을 보여주며, 건설적인 문화적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언어적 위계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영어를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다른 언어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언어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적 주권에 대한 인식 부재를 의미한다.

다섯째, 단기적 관점의 우세가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임시적 단계로 인식하며, 장기적 정착과 기여에 대한 의지가 제한적이다. 이는 정부의 인재 유치 정책목표와 상당한 괴리를 보여준다.

여섯째, 비대칭적 기대 구조가 관찰된다. 자신들이 받는 혜택과 지원에 비례하는 노력이나 책임 의식이 부족하며, 일방적 요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사회적 호혜성 원칙과 상충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들은 개별적 현상을 넘어서 한국의 국제화 정책과 다문화 사회 구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제시한다. 단순한 언어적 지원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보다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제언

세계 각국이 인적자본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우수인재 확보 실적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어기반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에 비영어권 국가인 한국의 언어적 요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영어기반의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습득 필요성의 인지 정도를 분석하고, 영어기반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한국어 정책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이공계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과 한국생활 전반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영어기반의 학습 환경이 한국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정착할 계획은 있지만, 한국어를 학습할 실천의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한국어 학습 의지보다 한국이 영어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 정부가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내의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이들의 귀환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귀환하는 유학생이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부족한 이공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들의 인적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기대 이하로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원인은 비영어권 국가로 언어적 한계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영어기반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인적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한국어 조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덧붙인다.

첫째, 유학 전 한국어 능통자에 대한 장학금 혜택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이다. 한국으로 입국 전에 독학으로 한국어를 학습한 경우와 한국기관(세종학당)제공 수업 참여자의 경우 한국으로 유학 온 이후에도 한국어 학습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국 전에 한국어 학습을 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온 이후에도 한국어 학습을 하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입국 전에 한국어 학습을 충분히 하고 입국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내 이공계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동기와 취업요건에 의하면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조숙정 외 2025: 271).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한국어 능통자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면 한국 유학을 결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습득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일 것이다.

둘째, 한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한국이 비영어권 국가라는 점은 현실적 한계이다. 그러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한국인의 정체성인 한국어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완화하거나 영어기반

을 확장하는 등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어가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같은 비영어권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각 자국어 능통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블루카드 소유자 중, 독일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자에게는 2년 후부터 장기체류 허가 획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 경우도 석·박사 과정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초청대학이 어학과정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어학과정을 위해 최대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또한 고도전문유학생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일본어 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일본어 능력 습득을 위한 연수비용을 보조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이병관 2013: 5-8).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국 환경에 적응하고 취업 후에도 인적자본으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학국의 언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대로 언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취업과 정주로 연결하려는 유치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기업-대학의 이공계 유학생 육성과 활용을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공계 인력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재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 기업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을 선호하고 있다. 유학생 또한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토픽 3급)을 의무화하여 취업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Make compulsory for phd students to learn korean language in University (topik 3) so that we don't find hard time to get a job.)- 인도 92년생 남성”

비록 대학원에서 영어기반의 과정을 밟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인적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 한국어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에 대

한 정부의 투자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재의 한국어 소통능력 함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유치에 관심이 있으며, 대학은 이들의 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한국어 학습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개인에게 맡기고 있어 한국어 정책에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언어정책의 부재는 정부의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목적인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일본도 유학생의 일본 취업을 장려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등교육기관 및 기업들은 정책적으로 유학생의 취업 활동을 촉진하였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소통의 한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자림 2019: 115). 따라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체류 희망 조사와 함께 진로와 졸업 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인력확보와 대학의 교육정책이 취업과 연계를 이루어야만 한다.

다섯째,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정부의 인력 확보에 치우친 지나친 개방이 실질적으로 인적자본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방형 설문에서 보여진 것처럼, 한국사회에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해 보인다. 한국어를 습득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한다는 것은 전혀 한국사회와 한국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국민에게 영어공부를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영어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 등은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할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다. 외국인 유학생 또한 이민자이다. 이민자의 삶은 이민자 중심으로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민자가 유입국의 법규와 문화를 따르지 않고 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한국어는 가장 한국 사회를 잘 나타내는 언어이다. 이 한국어를 외면한 채 장학금 혜택과 취업에 있어 외국인 우수 인재에 대한 혜택 요구는 유학국에 대한 존중과 글로벌마인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친화적인 또는 외국인 배려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주민이 편리하게 살도록

한국의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할 때 그들 또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목적은 국내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공계는 한국학생의 두뇌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이 귀환하거나 제3국으로 이탈하는 등 유치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활과 언어가 다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영어를 기반으로 유입된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이 한국사회에서 한국어 능력의 미비로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한국어 환경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한국어를 요구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인재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한국어 정책이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첫째, 단계별 차별화된 한국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재학생에게는 학술적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생에게는 실용적 언어 지원과 다중 언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행정 서비스의 언어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취업 정보와 관련 절차에서 다중 언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에 대응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전략”에 대한 후속 논문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인적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언어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향후 유학 전부터 한국어 학습을 해 온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과 정주에 대한 추적 연구를 한다면 언어정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법무부 용역과제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졸업생 표본(n=81)이 재학생 표본(n=542)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졸업생 표본을 확대하여 집단 간 비교 분석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문화 · 손경애 · 갈라노바 딜노자(2024).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연구-관주 지역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18(1), 1-28쪽.
- 김갑수 · 최규웅 · 강경식(2013). 외국인유학생 인적자원개발(H.R.D)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부제 : 외국인유학생(D-2)을 국내 취업 희망기업에 적극 활용을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제언.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123-134쪽.
- 김경훤 · 신영지(201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학습 과정: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6), 169-196쪽.
- 김꽃별(2024).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방안-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TRADE FOCUS〉 36, 1-40쪽.
- 김미연(2025).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비교 연구 — 유학생 취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제109회 국제학술대회, 48-54쪽.
- 김선재 · 이영화 · 임광혁(2010). 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 OECD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3), 315-325쪽.
- 김윤주(2024).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한국어교육 정책 고찰, 〈한성어문학〉 52(0), 1-33쪽.
- 김필두(2012). [선진 외국의 인적자원 관리 사례] 세계는 지금, 인재 육성 및 유치 위한 전쟁 중!, 〈월간 공공정책〉 79(0), 27-30쪽.
- 김현진 · 문영하(2014). 정부초청 장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습 동기, 한국어 숙달도에 대한 연구, 〈언어와 문화〉 10(1), 55-78쪽.
- 민귀식 · 정순기 · 조복수 · 김지영 · 김진영(2014).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세종: 교육부.
- 민숙원(2021). 국내 대학원의 진로 지원과 학위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식. KRIVET Issue Brief(2021, 219호)
- 민숙원 · 송창용 · 윤혜준 · 김혜정(2020).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선택 탐색과 인적자원 활용 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순영(2016).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2), 75-102쪽.
- 박은경(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 · 경북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13-139쪽.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08. 12).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송창용 · 장광남 · 송승원 · 최현식 · 송창길(2024).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신필여 · 박아현 · 이예진 · 황영애(2023). 한국어교육에서 융복합 수업 연구 동향 분석, <문화와융합> 45(11), 35-51쪽.
- 오영훈(2017.10.27.). 우리말 잘 못해도 OK, 등록금은 할인...외국인 유학생 유치 '급급'. 국정감사 보도자료.
- 윤종혁 · 이강주 · 서예원 · 김훈호 · 이쌍철 · 이상무 · 박일 · 김여리 · 한연희 · 우천식 · 주희정 · 이상협(2016). 고령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 유치전략 연구,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6-19-0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이병관(2013). 해외 우수인재 유치제도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보건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산업브리프> (89), 1-20쪽.
- 이윤주(2022). 중도탈락 귀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4(4), 141-168쪽.
- 이윤주 · 김명관(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 장벽 고찰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5(4), 107-134쪽.
- 이인혜(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 변화 추이와 탈동기 · 재동기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8(0), 135-162쪽.
- 이인혜(2021). 역동적 체계로서의 한국어 학습 동기-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동기, 탈동기, 재동기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1(0), 127-161쪽.
- 이인혜 · 공하림(2019).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과 학업 스트레스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45(0), 105-140쪽.
- 이종화(2016). 인적자본과 경제발전, <경제논집> 55(2), 269-276쪽.
- 이창원 · 김도혜 · 최서리 · 신소희(2020). 국내 유학생의 학업실태 및 취업이행 연구: 이공계 유학생을 중심으로, 고양: 이민정책연구원.
- 이희수 · 조순옥(2006). 글로벌인적자원개발 정책 동향과 과제 = Tendency and policy task in glob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역량개발학습연구> 1(2), 135-174쪽.
- 임정재(2024). 외국인 유학생 취업에 관한 정책 및 현황, <한국이민정책학회학술대회> 2024(7), 1-16쪽.
- 장석진(202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J대학 학부생 설문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에듀테크인먼트학회> 4(3), 77-99쪽.
- 장자림(2019).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 정책 및 현황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숙정(2024). 결혼이주여성의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0(18), 215-249쪽.
- 조숙정 · 오정은(2025). 초연결사회에 대응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전략 연구: 과학기술훈양 석·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8(2), 259-288쪽.

- 주동범 · 김향화(2013).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쪽.
- 최현실(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1, 71-93쪽.
- 한용진 · 김남희 · 한유경(2005).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국내 유치 실태에 관한 연구: 입국과 체류생활을 중심으로, <教育行政學研究> 23(1), 357-374쪽.
- Barro, Robert J., & Lee, JongWha(2015). Education Matters: Global Schooling Gains from the 19th to the 21st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Goldin, Claudia(2014). <Human Capital>(PDF). Claude Diebolt; Michael Hauptert. <<Handbook of Cliometrics>>.

필자 소개

성 명 조숙정
소 속 동아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154번길 29
전자우편 susuhao@naver.com

성 명 박성은
소 속 경성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전자우편 appassiato@gmail.com

Abstract

An Analysis of Korean Language Perceptions Among International STEM Graduate Students as Human Capital in the Context of a Hyperconnected Society

Jo, Suk-jeong · Park, Seong-eun
(Donga University · Kyungsh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perceived necessity of Korean language acquisition among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programs conducted in English, and examines how linguistic factors influence their employment, settlement, and integration in Korea. The primary data source is a survey of 852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s commissioned research proje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High-Caliber International Talent and Case Studies in Major Countries for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542 currently enrolled students with a D-2 (student) visa and 81 graduates with clearly defined visa statuses were selected, totaling 623 responden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perceive a low necessity for Korean language skills due to the predominance of English in their academic and daily lives, and they tend to prefer an English-centered environment over developing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herefore, to effectively attract and utilize these students as human capital, it is necessary to: motivate Korean language learning prior to their studies in Korea; implement supportive policies to enhance thei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foster collaboration among the government, industry, and universities to

www.kci.go.kr

cultivate and utilize international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this student population.

[Key words]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in STEM fields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Korean language policy, Human capital, high-calibe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Korean language

투고일 2025. 06. 09 / 심사일 2025. 07. 13 / 게재확정일 2025. 07. 21